담론 201 12(1), 2009
pp. 105-131

삶의 역사성과 추체험

- 딜타이의 의미 이론과 해석학적 재구성 방법론[1] -

신 진 욱*

국문요약

근대 해석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딜타이는 개인과 사회의 상징적 상호작용과 의미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에 토대를 두고, 의미 해석의 인식론과 논리학, 방법론적 구상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학은 딜타이의 해석학이 감정이입과 심리적 동일시라는 낭만적 관념에 머무르고 있다는 일면적 해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이 사회학적 의미이론과 해석방법론에 대해 갖는 풍부한 함의를 발견하고 현재화시킬 수 없었다. 딜타이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연구는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에 기여하는 몇 가지 함의를 이끌어냈다. 첫째, 행위자들의 삶은 곧 타인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체험해가는 과정이며, 행위자들이 이러한 체험들 간에 모종의 연관관계를 부여하는 해석적 실천을 통해서 '의미'가 생성된다. 둘째, 행위자의 의미세계는 삶의 생애사적 전개 속에서 일어났던 각각의 체험들을 하나의 전체적 역사로 엮어냄을 통해 형성되며, 그러한 개인들의 역사쓰기는 보다 넓은 사회적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객관화된 사회적 의미구조를 매개로 한다. 셋째, 그러한 행위자들의 의미구성과 의미체계에 대한 학문적 해석은 어떤 정태적 심리상태에 대한 감정이입과 동일시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삶의 역사적 전개와 그로부터 생성된 의미연관의 체계를 역진적으로 재구성하는 추체험의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딜타이의 통찰은

* 중앙대학교 / 사회학

1) 이 연구는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을 보내주시고 서신 토론에 응해주신 독일 에르푸르트 대학의 마티아스 융 교수께 감사한다. 또한 논문의 개선을 위해 유익한 지적과 조언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www.kci.go.kr

사회학적 행위이론과 의미이론, 해석 방법론을 더욱 체계적이고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딜타이, 해석학, 체험, 의미, 추체험, 방법론

Ⅰ. 서론

슐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딜타이(Wilhelm Dilthey),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가다머(Hans-Georg Gadamer) 등을 거치면서 정립된 현대 해석학은 교리적 해석의 한계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인간의 존재양식과 의미세계를 규명하는 '보편적 해석학'(universale Hermeneutik)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슐라이어마허, 슐레겔(Friedrich Schlegel), 뵈크(August Boeckh) 등 19세기 해석학자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딜타이가 체계적으로 구축한 정신학(Geisteswissenschaften)[2]의 결정적 기여를 통해 하나의 견고한 사상체계로 정립되었다. 인간 행위자들의 삶의 연관관계와 영향관계, 그리고 그러한 연관의 근원적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딜타이의 철학은 짐멜(Georg Simmel)과 베버(Max Weber) 등 고전사회학자들의 이론과 방법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 사회학에서도 딜타이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기든스(Anthony Giddens), 기어츠(Clifford Geertz) 등의 해석학 이론과 문화연구 방법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계승되고 있다. 그러므로 딜타이는 고전 사회학의 성립에 기여한 중요한 지적 전통의 하나일 뿐 아니라, 현대 사회학에서 지속적으로 현재화되고 있는

2) 이 논문에서 'Geisteswissenschaften'은 '정신학'으로 번역한다. 딜타이는 학문 영역이 실증주의적, 혹은 경험주의적 분과 학문으로 분절화 되어가는 데 대항하여, 인간·사회·역사에 대한 개별적 탐구들이 경계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종합적 학문을 지향했다. 이 논문에서 과학(科學)이라는 표현 대신 학(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딜타이의 그러한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영어권에서도 이 개념에 대해 다양한 번역이 사용되었는데, 필자와 같은 의도에서 'human studies'로 번역한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human sciences', 'cultural studies'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다(Makkreel, 1991: 45-47).

www.kci.go.kr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딜타이에서 유래하는 해석학의 흐름은 행위자들의 주관적 의식과 해석을 그로부터 독립적인 객관적 실재와 대립시키는 실증주의 철학에 반대하여, 사회적 실재가 행위자들의 해석적 실천과 그것의 상징적 표현물들에 의해 매개되고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점에서 그것은 후설(Edmund Husserl)과 하이데거를 거쳐 가다머에 이르러 체계화된 현대의 철학적 해석학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철학적 해석학이 인식론과 방법론의 문제를 해석학의 과제로부터 배제하면서 인식의 존재론적 기초로 몰입해 들어간 데 반해, 딜타이의 해석학에서는 인간 의식과 행위,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정신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의미 해석의 인식론·논리학·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과제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딜타이의 해석학은 행위이론, 의미이론, 의미해석의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전적 시도로서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 사회학에서는 딜타이의 해석학이 감정이입이라는 낭만적·심리학적 관념에 머무르고 있다는 일면적 이해에 머물러 있다.

현대 철학에서는 그와 같이 축소되거나 왜곡된 딜타이 해석에 반대하여 딜타이의 정신학과 역사적 이성 비판, 해석학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되어왔다. 이 논문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는 리델(Manfred Riedel), 로디(Frithjof Rodi), 마크렐(Rudolf Makkreel), 숄츠(Gunter Scholtz), 융(Mathias Jung) 등 딜타이의 해석자이자 계승자인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또한 후설-하이데거-가다머로 이어지는 현상학적 해석학 또는 철학적 해석학의 전통에 보다 가까운 리쾨르(Paul Ricoeur)와 팔머(Richard Palmer) 등도 딜타이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에서도 사회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가다머가 현대 사회이론과 방법론(혹은 反방법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이었던 데 반해, 철학자들은 딜타이에 대한 많은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어왔다. 칸트(Immanuel Kant)의 비판철학과 딜타이의 역사적 이성 비판 간의 관계(최성환, 2001), 후설 현상학과 딜타이 정신학의 관계(양해림, 2000), 딜타이와 베버·짐멜·하버마스 등 사회학자들과의 관계(양해림, 2001, 2003), 딜타이의 정신학과 역사적 이성 비판이 하이데거 존재론에 미친 영향(김인석, 2007; 김재철, 2001a, 2001b), 가다머의 딜타이 비판에 대한 반비판(김창래,

www.kci.go.kr

2008), 딜타이의 행위이론과 사회이론(양해림, 1999), 딜타이의 정신학 및 해석학 방법론(이서규, 2008) 등 한국의 철학자들은 상당히 폭넓은 관심 하에 딜타이에 접근해왔다.

그러나 영미권의 철학자들은 딜타이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그의 해석학을 단순한 심리학주의 또는 비합리주의적 역사주의로만 이해해왔으며(Bulhof, 1980: 6), 특히 딜타이가 고전 사회학에 미친 직접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자들이 표피적인 딜타이 이해에만 머물러왔다는 것은 아쉬운 공백이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딜타이가 한편으로 낭만주의적 면모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존재론적 통찰에 기초한 해석학적 재구성의 방법론을 깊이 있게 발전시켰음을 보여줄 것이다.[3] 이 연구는 딜타이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성찰하지 않았던 내적 긴장을 주목하여, 그 긴장의 한 축을 이루는 해석학적 재구성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는 단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한 생산적인 행위"(Gadamer, 1990〔1960〕: 301)라는 철학적 해석학의 통찰은 '해석학에 대한 해석'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의 방법론에도 해당된다.

Ⅱ. 사회학에서 딜타이 해석학의 수용과 비판

1. 근대 해석학과 고전 사회학

3) 딜타이 철학이 과연, 얼마만큼,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 차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방법론적 관심에 집중되고 있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다. 하이데거는 딜타이의 '존재론적 무관심'을 비판했었지만 그것은 딜타이가 구체적 인간 존재들의 '존재적'(ontic) 차원 근저에 놓여 있는, 존재 자체의 가능성 조건에 관한 '기초존재론적'(fundamental-ontological) 차원을 중심 과제로 놓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지, 딜타이가 오직 인식론적 관심에만 갇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Mul, 1991). 존재론이라는 개념을 존재적 차원에 대한 철학적 진술로 느슨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딜타이의 설명/이해의 인식론적 구분이 자연과 정신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역사적 체험의 구조연관'에 대한 그의 존재론적 관점이 해석학적 인식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Lau, 1999: 454, 465).

www.kci.go.kr

근대 해석학은 경전적 텍스트에 대한 교리학(Dogmatik)의 한계로부터 해석학을 해방시켜 그것을 인간들의 정신적 삶과 사회역사적인 의미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석학의 보편성'(Gadamer, 1993[1966])이라는 차원이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근대 해석학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기에 정립된 고전 사회학의 해석적 흐름과 활발히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베버의 이해사회학과 짐멜의 사회학 이론에서 딜타이 정신학은 깊은 흔적을 남겼다(Hahn, 1994). 이해사회학적 관점에서 베버가 발전시킨 이념형 방법론은 딜타이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학문적 개념이 행위자들의 삶 자체로부터 생성되는 범주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는 딜타이 인식론과 충돌하기도 한다(Fischer-Rosenthal, 1995: 80-82). 그러나 신칸트학파는 결코 베버 방법론과 행위이론의 유일한 지적 원천이 아니었으며, 딜타이의 정신학 역시 베버가 자기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수용한 중요한 당대의 학문적 자원에 속했다.[4)]

짐멜의 경우 딜타이의 영향, 그리고 또한 딜타이와의 이론적 친화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베버보다 칸트 비판철학이나 신칸트학파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었던 짐멜에게 딜타이가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이 영향관계는 때론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 예로 인간 행위를 "생각함, 의지함, 느낌(Vorstellen, Wollen, Fühlen)"(Simmel, 1989[1892]: 303)의 통일체로 이론화한 짐멜의 통합적 행위이론은 딜타이의 "의지, 지성, 감정(Wille, Intelligenz, Gefühl)"(Dilthey, 1990[1864-68]: 123)의 개념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회이론의 기본 관점에서도 짐멜과 딜타이는 커다란 친화성을 보여준다. 짐멜은 "

4) 캐슬러(Dirk Kaesler)는 베버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딜타이의 직관적 해석학의 측면을 수용하진 않았지만, 20세기 전반기 유럽 지성계에서 '실증주의 비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딜타이, 빈델반드(Wilhelm Windelwand), 리케르트(Heinrich Rickert), 트뢸치(Ernst Troeltsch),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 등과 같은 지적 흐름을 형성했음을 지적했다(Kaesler, 2003: 227, 236). 또한 뮐러(Hans-Peter Müller)는 베버가 사회학을 경험적 현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현실과학'(Wirklichkeitswissenschaft)로서 정립하기 위해 개인들의 의미세계와 행위가 역사적·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됨을 강조했으며, 이 맥락에서 딜타이 철학에서 자연과학과 정신학의 구분을 깊이 수용했다고 해석했다(Müller, 2007: 53-54). 양해림(2001, 2003)은 인간 행위의 지향성(intentionality)과 목적/수단 관계에 관한 딜타이의 행위이론이 베버의 사회학적 행위이론에 준 영향을 주목했다.

www.kci.go.kr

개인들 사이에서 움터 생겨나는 상호작용들의 아프리오리"((Simmel, 1992[1908]: 49), 즉 개인들에게 이미 주어져있는 사회적 연관관계를 주목하여 사회학이 그러한 상호작용과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역사적 학문과 정신학의 자체의 '방법'"(Simmel, 1999[1917]: 73)이라고 규정했다. 딜타이의 정신학에서 우리는 그와 유사한 관심과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개인들의 삶과 사회 제도의 역사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개인들 간에, 또 개인과 제도 간에 존재하는 연관관계와 영향관계를 이해함을 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아프리오리로서의 구조적 연관"이 인간의 삶과 정신성의 본질이라고 정의했는데(Dilthey, 2004[1904-1911]: 161), 이는 짐멜 사회학의 출발점이 되는 '사회학적 아프리오리'와 일치하는 관점이다.[5] 이처럼 고전 사회학은 딜타이가 발전시키고 있었던 정신학적·해석학적 관점과 교류하면서 해석적 사회과학의 행위이론과 사회이론, 그리고 연구방법론을 정립해갔다.

2. 현대 사회학에서 딜타이 해석학의 계승

현대 사회학에서 해석학의 수용사는 딜타이의 인식론과 방법론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가다머의 등장으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가다머의 비판은 이미 그의 해석학적 탐구가 시작되는 초기 시기부터 이뤄졌으며(Gadamer, 1995[1949]), 철학적 해석학이 정립된 대표적 저작인 『진리와 방법』에 와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딜타이가 삶과 사회의 역사성을 탁월하게 통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적 고찰자의 장소구속성"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이해의 유한성"이 결코 극복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Gadamer, 1990[1960]: 236). 이러한 비

5) 게르하르트에 따르면, 딜타이가 『정신학 입문』(Dilthey, 1990[1883])에서 수행한 실증주의 비판과 칸트 철학의 비판적 수용, 그리고 형이상학적 역사철학에 반대하여 삶과 사회의 역사성과 의미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 그의 정신학적 기획은 『역사철학의 문제들』(Simmel, 1989[1892])을 비롯한 짐멜 초기 저작들에서 이미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Gerhardt, 2001: 104-124). 또한 양해림(1999)은 딜타이가 개인성의 형성,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역사적·사회문화적 차원 간의 관계를 정신학의 핵심 내용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줬으며, 이것이 짐멜 사회학에 큰 영향을 줬음을 지적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측면은 짐멜이 비교적 후기에 가서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사회학 이론들에 핵심적인 내용이다(Simmel, 1999[1908], 1999[1917]).

www.kci.go.kr

판에 기초하여 가다머는 해석학이 결코 해석의 인식론과 방법론이 될 수 없으며, 학문적 인식의 통제영역 밖에 있는 현존재의 존재양식을 규명하고 그것에 합당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다머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에서 딜타이의 철학과 해석학은 지속적으로 영감과 이론의 원천이 되어왔다. 현대 사회학에서 독자적인 해석학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 사회이론가인 기든스의 해석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의 '이중적 해석학'(double hermeneutic) 이론에서 체계화되었다(Giddens, 1976, 1984). 여기서 그는 해석학의 과제가 인식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가다머의 주장에 대해 그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사회과학적 해석이 행위자들 자신의 의도와 관련하여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방법론적 질문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Giddens, 1976: 62). 하지만 그는 가다머의 반(反)방법론에 반대함과 동시에, 또한 딜타이의 해석학 방법론, 베버의 이해사회학 방법론을 함께 비판했다. 이들은 "'이해'와 '설명'을 대립시키는 가운데, … 타인의 체험을 심리학적으로 '재연'(re-enactment; nacherleben)하거나 상상적으로 재구성(nachbilden)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Giddens, 1976: 55)다는 것이다. 기든스의 이러한 비판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딜타이는 자연학과 정신학의 구분을 설명과 이해의 구분과 종종 동일시했으며, 또한 심리학적 낭만주의의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딜타이의 추체험이나 베버의 이념형 방법론을 '심리학적' 재연으로 축소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딜타이나 베버는 해석에서 이입과 직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이들의 방법론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하버마스의 해석학 이론에서 딜타이의 영향은 보다 깊고 직접적이다. 의아하게도 딜타이가 그의 해석학 이론에 미친 영향은 그동안 하버마스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버마스의 해석학 이론이 딜타이의 역사적·해석학적 기획을 세심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인식론에 기초를 놓은 저작인 『인식과 관심』(Habermas, 1968)에서 하버마스는 실증주의를 넘어서는 역사적·해석적 인식론을 정립하기 위해 무려 두 장(章)을 할애하여 딜타이의 정신학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예를 들어 『도덕의식과 의사소통행위』에서 그는 '고독한 주체'의 관념에 대한 대안으

www.kci.go.kr

로 "상호주관적이면서 동시에 협동적인 인식활동에 뿌리박은 일상적 실천과 의사소통의 연계"라는 새로운 관념을 제시한 것이 무엇보다도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와 더불어 딜타이였음을 강조하고 있다(Habermas, 1983: 17). 말하자면 학문적 인식의 수행적·소통적·대화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그의 해석학 이론에 딜타이는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인식에 대한 메타이론적 반성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을 모색하는 지점에서, 그는 딜타이를 감정이입 이론의 대표자로 간주하는 일면적 해석에 머물렀다(Habermas, 1983: 37). 그러므로 우리는 하버마스가 딜타이의 정신학 체계를 이해하는 데서 기든스보다 더 … 심오했지만, 딜타이의 인식론·논리학·방법론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기든스와 마찬가지로 표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와 달리 기어츠는 비록 딜타이의 정신학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해석학적 방법론을 문화연구에 보다 건설적으로 접목시켰다. 그의 '두텁게 기술하기'(thick description)의 방법론은 사회과학이 현상의 배후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관찰자적 접근이 아니라, "의미화의 구조를 분별하고 …그것의 사회적 기초와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행위자들 자신의 "해석을 해석"하는 접근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Geertz, 1973: 9). 이때 대두되는 문제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기어츠는 그것이 결코 연구대상과의 완전한 동일시, 혹은 해석자의 영웅적 자기소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관념의 틀 안에서 그들의 체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했다(Geertz, 1983: 59). 그렇다면 이해의 방법론적 열쇠는 바로 이 '관념틀'(framework of ideas)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어츠는 해석학적 순환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그것은 "국지적인 세부적 사실들 중에서도 가장 국지적인 것과 포괄적 구조의 가장 포괄적인 것 사이를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오고감으로써 양자를 동시적인 관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Geertz, 1983: 69). 기어츠는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이 "문화기술지적 해석과 타인의 사유양식으로의 진입에 핵심적이며, 이 경우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일상적 체험에 대한 비공식적 주해에도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Geertz, 1983: 69). 이처럼 기어츠의 문화연구 방법론과 해석학 방법론은 실질적인 연관을 갖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근대 해석학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www.kci.go.kr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딜타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Ⅲ. 딜타이 정신학의 이중성과 낭만주의 해석학

딜타이의 정신학은 이미 24권까지 출간된 그의 전집이 말해주듯 무척 방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딜타이 해석자들 중에는 후기의 역사적 이성 비판과 정신학적 체계가 초기의 기술심리학적 관점과 단절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Jung, 1996), 반대로 그의 후기 철학에서도 초기의 미학적·심리학적 차원이 큰 의의를 갖는다는 입장도 있다(Makkreel, 1991). 딜타이 철학체계 전체의 연속과 단절에 대해 어떤 입장이 보다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이 논문의 범위와 능력을 벗어난다. 다만 이 논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해석학 방법론에 국한시켰을 때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직관적 이해냐 아니면 삶과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해석학적 재구성이냐라는 측면에서 그의 초기(初期)와 후기(後期) 저작 사이에 명확한 단절과 이행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 관점은 그의 전체 시기 저작에서 모호한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고 있다.

우선 이미 그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심리학주의를 거부하는 탈(脫)형이상학적 논리학과 방법론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신학 입문』(Dilthey, 1990[1883])은 그의 초기 심리학주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출간된 이른바 "바젤 시대의 논리학"(Dilthey, 1990[1864-68])에서 이미 딜타이는 개인의 정신과 감정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로부터 인간 사회와 행위에 대한 설명이 도출될 수 없으며, 정신학은 인간 정신이 생성되는 자연적·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귀납적 연구들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내면과 행위에 대한 설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Dilthey, 1990[1864-68]: 121-123). 말하자면 심리학주의를 넘어서는 경험적 지식은 딜타이 정신학의 기획에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낭만주의적 관점이 딜타이의 초기 기술심리학적 저작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알려진 바다. 『정신학 입문』과 거의 같은 시기에 행해진 논리학 강연에서 딜타이는 타인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www.kci.go.kr

말하고 있다.

> 우리는 유비(Analogie)의 추론방식에 상응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 타인의 상태를 인식한다. 이 추론의 상위명제는 오직 육체적일 뿐인 〔타인의〕 표현들(음성, 몸짓, 행위)과 나 자신의 내적 상태 간의 연관관계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한편 하위명제를 형성하는 것은 나에 의해 지각된 타인의 표현과 나 자신의 표현 사이의 친족성(Verwandtschaft)이다. 이로부터 나는 타인의 언어·행위·몸짓에 상응하는 인접한 내면성을 추론해낸다. ···그러한 추론절차의 전제조건은 친족성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종의 계보학적 연관성에 기초해 있다(Dilthey, 1990〔1885/86〕: 187-188).

나의 체험과 내 안에 있는 정신성의 요소에 비추어 타인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호이해의 체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비'의 추론방식은 딜타이 자신이 추구했던 '학문으로서의 해석학'에 대한 기초로서는 너무나 취약했다. 딜타이의 해석학 이론을 집약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1900년 논문인 「해석학의 탄생」(Dilthey, 1957〔1900〕)은 위와 같은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과 구분되는 후기 해석학의 단초를 보여주는 과도기적 저작이다. 이 논문에서 딜타이는 개인들의 내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정신학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초기적 입장을 비판하고, 그 대신에 '표현'(Ausdruck)이라는 개념에 중요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것은 딜타이 해석학에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뜻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해석학의 과제를 타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직접적 이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호주관적 상징체계에 의해 매개된 이해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Dilthey, 1957〔1900〕: 318-320).

그러나 타인들의 삶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딜타이는 여전히 낭만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딜타이는 자연과학의 대상과 달리 정신학의 대상은 '해석자에게 낯설지 않은 타인'이라는 모호한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 "타인의 개인적 표현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자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이 나타날 수는 없다. 모든 개인성들 안에는 동일한 기능과 요소들이 있다"(Dilthey, 1957〔1900〕: 321).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그가 최선의 해석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 역시 낭만적 한

www.kci.go.kr

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조건이란 해석자의 '천재성', 타인의 정신세계로 뛰어듦으로써 점차 증대되는 '친족성', 그리고 이해의 기술론으로서의 해석학이다(Dilthey, 1957[1900]: 318-321). 적어도 이 대목에서 딜타이가 낭만주의와 실증주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가다머의 비판(Gadamer, 1987[1984])은 완전히 타당하다. 그러나 융(Jung, 1996: 161)이 강조한 바와 같이, 딜타이의 후기 해석학에 와서는 초기의 '체험—이해'의 이원적 개념구조가 '체험—표현—이해'라는 삼각구조로 무게중심이 변화했으며, 이와 더불어 해석의 방법론 역시 타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아니라, 상징적 표현들의 의미연관과 구조적 질서에 대한 해석학적 재구성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Ⅳ. 삶과 의미의 해석학적 구조

1. 삶, 체험, 그리고 의미의 생성

딜타이가 정립하고자 했던 정신학적 기획의 핵심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모든 학문의 궁극적 토대를 인간들 자신의 구체적 삶들, 그리고 그것의 연관관계와 역사성에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딜타이 철학 일반과 그의 해석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삶'(Leben), 또는 '삶 자체'(Leben selbst)라는 개념이었다. "삶(Leben)은 외적 세계의 조건 하에 있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Wechselwirkungen)의 연관관계다. … 삶은 삶의 단위들(Lebenseinheiten) 간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Dilthey, 1981[1910]: 282-3). 위의 관점은 원자적 개인들 간의 외적 관계로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곧 '삶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의 연속이며, 또한 그 가운데 타인들과의 연관관계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삶의 개별적 경험(Erfahrungen)은 삶의 과정 전체에 대한 연관관계 속으로 결합됨으로써 '체험'(Erlebnisse)이 된다.

여기서 딜타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삶의 개별적 체험들을 서로 연계시켜 하나의 전체로서의 삶의 연관관계로 엮어내는 행위자들의 해석적 실천이

www.kci.go.kr

다. 그러한 실천들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의미'(Sinn/Bedeutung)다. "의미라는 범주는 삶의 부분들이 삶의 본질에 터하는 전체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지칭한다. … 모든 삶의 순간들은 전체와의 연관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관계를 통해, 개별적 현존재와 인류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Dilthey, 1981[1910]: 288) 즉 개별적 경험은 개인 혹은 공동체의 여러 경험들을 결합시키는 전체적 의미연관의 한 부분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체험, 즉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개별적 체험들에 부여된 부분적 의미(Bedeutung)와 생애사적 과정에 부여된 전체적 의미(Sinn)는 해석학적 순환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딜타이의 의미 이론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의미연관'(Bedeutungszusammenhang)과 '현실연관'(Wirklichkeitszusammenhang) 간의 관계다. 만약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즉 의미연관이 곧 현실연관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오직 행위자에 의해 지각되고 해석된 현실만이 실재한다고 믿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미연관이 보다 넓은 현실연관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 현실연관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본다면, 의미 해석의 학문은 행위자들의 의미연관과 그것을 발생·규정·제한하는 존재론적 차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규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딜타이의 관점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그는 의미연관과 현실연관을 종종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실의 연관구조가 곧 의식과 의미의 구조적 연관관계에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현실의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실재론에 가까운 관점을 드러내기도 한다.[6]

6) 이 문제는 딜타이의 행위이론이 의식·상징·의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질문과도 관련된다. 융(Jung, 2008)은 딜타이 저작에서 통합적 행위 이론의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조명했는데, 그에 따르면 딜타이는 프래그머티즘과 진화생물학 등을 수용하여 '사유'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통합적 '행위'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딜타이는 존재론적 수준에서 '의식'을 보다 포괄적인 '행위'의 한 계기로 간주하고, 또한 행위의 비인지적 차원을 체계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는 의식과 언어의 차원에 한정된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각·관념·감정·충동·의지가 서로 결합되는 총체적 행위 과정과 그것의 구조화된 산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Jung, 1995). 그러나 딜타이는 인간 존재와 행위, 또 그것의 사회역사적 차원을 체계적인 고찰의 과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개별적 진술들은 많은 모순과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www.kci.go.kr

> 구조의 학문(Strukturlehre)은 영적 삶에 대한 특별한 고찰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영향관계(Wirkungszusammenhang)에 대한 지식이다. …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체험의 부분들은 〔구조〕 안에서 체험들의 연관관계로 서로 연계된다"(Dilthey, 2004〔1904-11〕: 159-160).

여기서 딜타이는 해석학의 과제가 어떤 독립적 실체로서의 정신성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 영향관계와 체험의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식 속에 존재하는 의미연관은 삶 자체의 영향관계와 체험들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며, 행위자들은 그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체험들을 특정한 의미연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 반응한다. 즉 개별 행위자들의 의미연관의 구조는 그들의 삶이 놓여 있는 사회적 연관관계 속에서 생성되며, 역으로 개인들은 그러한 해석적 실천을 통해 현실적 연관관계를 변화시키는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딜타이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삶의 영향관계와 의미의 생성은 무시간적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간성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정이다.

2. 삶의 역사성, 역사 속의 삶

딜타이에게 역사성은 삶의 본질이다. "삶이 전개되고 이해되는 모든 곳에 역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역사가 있는 곳에 그것의 다양한 의미가 존재한다. … 〔역사는〕 하나의 사건, 개인, 혹은 공동체에 의해 연관관계의 특정한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 있다"(Dilthey, 1981〔1910〕: 316). 이처럼 삶이 역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삶, 상호작용, 영향관계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의 시간성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체험된 시간에 관련된다. 우리는 모든 각각의 의미 있는 체험들을 하나의 서사적 또는 인과적 연쇄로 연계시킴을 통해 비로소 삶 전체의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딜타이가 "연관관계의 특정한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 역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 삶의 역사성에 대한 이와 같은 통찰을 통해서, 텍스트의 부분-전체 관계를 평면적이고 무시간적으로 규명하려 했던 전통적인 해석학 방법론은 이제 딜타이에 와서 '개별적 체험들과 전체로서의

www.kci.go.kr

삶 사이의 관계'라는 존재론적 차원을 획득하게 된다.[7]

이상과 같은 삶의 역사성, 또 그로부터 생성되는 의미연관들은 개인성의 경계를 뛰어넘는, 모든 개인들의 삶의 전제가 되는 공동체의 역사성 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의미를 구성하는 개인 주체들의 활동은 고립되고 폐쇄된 개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의미체계를 매개로 한다. 역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해석적 실천은 역사적 의미체계의 새로운 일부가 되며, 또한 이를 통해 그것을 변형시킨다. 개인의 공동체성을 가장 넓은 차원까지 확장하여 본다면, 모든 삶의 순간들은 "개별적 현존재와 인류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갖게"(Dilthey, 1981〔1910〕: 288) 되며, 개인들의 삶의 의미연관은 "삶의 구조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환경의 조건 하에서 내포하게 되는 관계들"(Dilthey, 1981〔1910〕: 288-289)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립된 개별 주체에 갇힌 유아론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역사성의 관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딜타이는 헤겔의 '객관정신'(der objektive Geist)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에게 객관정신은 어떤 추상적인 정신적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성(Gemeinsamkeit)이 의미의 세계에서 객관화되는 다양한 형태들〔로서〕 … 타인들과 그들의 삶의 표현들을 이해하는 매개"다(Dilthey, 1981〔1910〕: 256). 그것은 법·종교·가족·국가·문화체계·경제제도 등 다양한 사회제도들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원리들을 추상화시킨 개념이다. 개인들을 동질적 연관관계로 묶어내며 견고하고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러한 객관정신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들의 삶의 표현들은 공동성에 관련된 지식과 의미구조에 의해 매개되고 채워진다. 그러나 객관정신과 개인 간의 영향관계는 쌍방적이다. "정신적 세계에서 개별적인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며, 나아가 우리가 그 자체로서 가치

7) 딜타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서의 개별적 사건과 체험들을 하나의 총체로서의 역사, 즉 구조적 연관으로 구성한다고 보며, 따라서 딜타이에게 해석학적 탐구의 과제는 단지 개별 행위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행위자의 정신적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었다(Bulhof, 1980: 27). 뒤에서 곧 언급하겠지만, 딜타이는 나아가 개인들의 삶의 구조가 보다 넓은 역사의 구조적 체계를 이루면서 또한 그것을 변화시키는 최소단위(Urzelle)라고 간주했다(Bulhof, 1976: 23-25). 그러나 딜타이는 그의 존재론적 서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실'(Wirklichkeit), '연관'(Zusammenhang), '구조'(Struktur) 등의 개념을 분명히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해석학의 존재론적 기초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공존하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www.kci.go.kr

를 갖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단지 어떤 보편적 인간성의 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개인적 전체로 간주해야 한다"(Dilthey, 1981[1910]: 261).

이처럼 딜타이는 한편으로 개인들이 삶의 개별적 체험들을 엮어서 삶 전체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과정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삶과 해석적 실천이 보다 넓은 사회적 공동체의 역사성과 맺고 있는 관계를 규명함을 통해, '부분-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해석학의 고전적 명제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재정식화했다. 그러한 철학적 기초 위에서 딜타이는 심리적 감정이입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해석학적 재구성의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Ⅴ. 해석학적 귀납과 추체험의 방법론

1. 삶의 표현들과 해석의 과제

이제 딜타이의 인식론과 방법론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자. 딜타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정신학 체계에 기초하여 해석학의 과제를 새롭게 정의한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정태적인 정신적 구조와 심리상태에 대한 직관적 이입일 수 없다. 그의 해석학의 목표는 "역사적 세계의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인식론적 과제와 관계를 모색"(Dilthey, 1981[1910]: 269)하는 것이다. 딜타이에게 해석학은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이해'(Verstehen)라는 존재양식이 어떤 위상을 갖는지를 규명하는 존재론적 학문이라기보다는, '해석'(Auslegung)에 관한 인식론적 학문, 즉 "지속적이고 고정된 삶의 표현들에 대한 예술적[기술적] 이해"의 학문이었다(Dilthey, 1981[1910]: 267).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해석'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의 해석학 방법론에 관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딜타이는 '기초적 이해형태'와 '상위의 이해형태'라는 개념적 구분을 제시했다. '기초적 이해형태'(die elementaren Formen des Verstehens)는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관심에서 나온다. 개인들은 타인과 상호작용 하면서 살아가며,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해시켜야

www.kci.go.kr

한다. 철학적 해석학에서 말하는 보편적 이해의 양식은 이러한 이해형태에 관련된다. 이에 비해 '상위의 이해형태'(die höheren Formen des Verstehens)는 특수한 행위의 의미를 전체적인 삶의 연관과 연계시키려고 시도한다. 그것은 기초적 이해형태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한 이해의 시도가 불확실성과 모순에 부딪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연관성 속에서 특정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Dilthey, 1981[1910]: 255-261). 여기서 딜타이는 결코 학자들의 학문적 해석만이 상위의 이해형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자들은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기초적 이해형태로부터 보다 상위의 이해형태로 이행하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해석학은 보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삶과 사회의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의미연관에 대한 해석을 추구한다.[8)]

딜타이의 후기 해석학은 그와 같은 과제가 타인의 내면과 심리에 대한 감정적 이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상징을 매개로 구성된 표현들을 해석적으로 재구성함을 통해 달성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고정된 삶의 표현"은 곧 텍스트의 물질성과 자율성을 뜻하기 때문이다(Dilthey, 1981[1910]: 267). 딜타이는 해석학의 소재가 되는 삶의 표현(Lebensäußerungen)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한다. 첫째는 개념이나 이론과 같은 거대한 사유구성물이다. 주로 학문의 구성요소가 되는 이러한 표현들은 체험으로부터 분리되어 논리적 규범에 따라 적합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삶의 표현에 대한 이해는 가장 완전하지만, 행위자들 자신의 체험·의미·가치·목표는 '어두운 배경'으로 남아 있다. 둘째는 행위(Handlung)다. 인간의 행동은 삶의 전체성을 어떤 한 일면으로 축소하는 힘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행동은 우리 존재의 오직 한 부분만을 말해줄 뿐, 존재 내의 다른 가능성들은 바로 그 행동에 의해 제거된다. 세 번째 형태는 바로 '체험의 표현'(Erlebnisausdruck)이다. 딜타이는 개인적이면서

8) 딜타이가 말하는 기초적 이해형태와 상위의 이해형태는 질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두 이해의 양식인데, 그 한쪽 극단에는 일상적 대화상황에서의 상호이해가, 다른 쪽 극단에는 엄밀한 방법적 통제와 자기반성을 거친 학문적 해석이 놓여 있다. 양자가 어떤 체계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은 학문적 탐구와 일상적인 지적 활동 간의 연계와 차이에 관한 과학이론을 요구하는 난해한 질문이다. 이 문제를 특별히 중요시했던 전통은 무엇보다 프래그머티즘, 그 중에서도 퍼스와 듀이(John Dewey)(영어명)의 논리학이었다(Dewey, 1988[1929], 1991[1938]; Peirce, 1998).

www.kci.go.kr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체험들의 생생한 표현이야말로 다른 모든 삶의 표현 형태들보다 삶의 연관에 대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의 가장 전형적 예는 자서전이며, 삶의 역사성에 관한 서사적 진술을 내포하는 모든 종류의 상징적 표현이 여기에 포함된다(Dilthey, 1981[1910]: 252-4).

이처럼 딜타이는 타인의 내면과의 직접적 동일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매개된 표현들에 대한 해석을 추구하지만, 그의 해석학에서 의미연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 기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의미할 수 없다. 슐라이어마허가 문법적 해석과 심리학적 해석을 구분함으로써 언어의 이해와 정신의 이해를 함께 추구했다면(Schleiermacher, 1977[1838]), 딜타이는 정신의 영역을 더욱 뛰어넘어 '삶 자체'와 사회적 공동체의 역사성의 맥락에서 텍스트의 연관구조를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딜타이 철학에서 의미는 기호들 간의 형식적 연관관계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생애사적 체험들과 그 체험들에 대한 해석적 실천으로부터 생성된다. 그러므로 삶과 사회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독립되어 기호들 간의 관계 형식만을 규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의 내용을 해석해낼 수 없다. 학문적 해석은 "이해가 말들과 그것의 의미라는 영역을 넘어서게 될 때, 그리하여 더 이상 단지 기호의 의미만이 아니라 삶의 표현들에 내포된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게 될 때 취하게 되는 일반적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삶의 의미연관은 "문법적 의미연관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Dilthey, 1981[1910]: 290-291).

2. 삶의 범주들과 맥락적 · 재구성적 귀납

그렇다면 상징적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연관성과 역사성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열쇠는 그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범주론(Kategorienlehre)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은 '형식적 범주'(formale Kategorien)와 '실재적 범주'(reale Kategorien)의 개념적 구분이다(Dilthey, 1982: 171-172). 딜타이가 말하는 형식적 범주는 인식자의 사유에 의해 순전히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범주다. 딜타이는 이런 범주영역이 존재하며 또한 인식과정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현실의 연관관계를 포착하는 모든 범주가 이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칸

www.kci.go.kr

트적 사고의 일면성을 비판한다. 이와 구분되는 실재적 범주는 이성이 아니라 삶의 연관 자체에 기초를 둔, 그리고 삶 자체로부터 생성되는, 삶의 체험들로부터 인간 행위자들 자신이 구성해가는 범주들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칸트 비판철학과 대립한다.

> 오늘날 지배적인 관점은 범주가 내포하고 있는 연관관계가 이성, 즉 지성의 통일적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현실 속의 연관관계는 지성 내의 연관관계와 상관되며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주를 나는 형식적 범주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재적 범주는 이와 완전히 구분된다. 그것은 결코 이성이 아니라, 삶의 연관관계 자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형식적 범주의 특성은 그것의 완전한 투명성과 명료성이다. 그것은 이 범주들이 사유에 기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재적 범주의 특성은 우리가 〔단지〕 사유를 통해 그것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범주들은 곧 삶의 연관관계다(Dilthey, 1984: 171-2).

우리는 앞에서 개인 삶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성에 관해 논하였거니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실재적 범주의 형태와 의미는 개인 삶과 공동체의 역사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변화한다. 그러므로 삶과 의미의 연관관계에 대한 해석은 해석자의 논리적 사유에서 도출된 추상적 범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삶 자체로부터 생성되는 범주들에 기초하여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의 범주들로부터 해석자는 어떻게 의미연관의 구조를 해석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딜타이가 제시한 논리학적 응답은 맥락적이고 재구성적인 귀납(Induktion)의 추론형식이다. 그에 따르면 상위 형태의 이해는 행위자의 "정신적 삶이 그의 사회문화적 환경(Milieu; Umstände)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개별적인 삶의 표현들로부터 삶의 연관관계 전체를 끌어내는 귀납적 추론 … 을 거쳐 하나의 전체적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이른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Dilthey, 1981〔1910〕: 260-261). 여기서 그가 생각하는 귀납의 논리는 해석자가 대상현실의 구성요소들 간의 연관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 경험주의 또는 자연주의 인식론과도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딜타이는 삶 자체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해석

www.kci.go.kr

적 재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귀납적 추론은 궁극적으로 '의미연관의 구조'를 재구성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적 수단이 바로 '추체험'(Nacherleben)이다.

3. 추체험: 해석학적 재구성의 방법론

『역사적 세계의 구축』에서 딜타이는 추체험을 "영향의 전개를 거슬러 추적하는 역진적 작업(inverse Operation)"으로 정의했다. 거기에서 "이해는 사건 자체의 전개과정을 따라 진행된다. 이해는 삶의 전개과정 자체와 더불어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Dilthey, 1981[1910]: 265). 이러한 정의의 의미는 오직 이 논문에서 서술한 그의 존재론과 의미이론을 이해할 때에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딜타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즉 타인의 의미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딜타이가 '삶 자체'와 동일시했던 타인과의 영향관계를 이해하고, 또한 그가 삶의 체험들을 어떤 연관관계로 엮어서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 그의 삶의 역사성과, 또한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공동체의 역사성을 재구성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추체험적 인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추체험을 실현하는 하위 인식활동으로서 '이입', '현재화',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먼저 이입(Hineinversetzen)은 추체험의 기초가 되는 인식활동이다. 이입은 '감정이입'(Einfühlung)이나 '공감'(Mitfühlen)과 혼동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통해 "기초적인 이해 활동으로 파악한 외적 언어들로부터, 정신적 세계에 놓여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불러내는"(Dilthey, 1981[1910]: 263) 것이다. 여기에서 "외적 언어"란 타인이 어떤 조건과 환경 하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관한 사실적 지식이다. 이입이란 그러한 사실적 지식을 배경으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바로 그 행위 상황에서 바로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 행위자에게 무엇을 '의미'했겠는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딜타이가 "가능성들을 불러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타인의 의미세계를 해석자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창안적(abduktiv)인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의 가능성들을 해석과정에 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행위자들 자신의 의미구성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석적 재구성의 가설들이다. 이

www.kci.go.kr

상에서 우리는 딜타이의 추체험 방법론에서 이입이 감정적 동일시가 아니라 대단히 인지적인 활동임을 알게 된다. 딜타이는 타인이 느끼는 바와 같이 느끼고자 하는 공감의 노력이 "추체험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긴 하지만, 추체험은 결코 "심리학적으로 설명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Dilthey, 1981〔1910〕: 265).

이와 더불어 딜타이는 추체험의 두 가지 계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행위자들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외적 상태를 생생하게 '현재화'(Vergegenwärtigung)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상력'(Phantasie)을 통해 해석자 자신의 삶의 연관에 내재한 행동양식, 감정, 욕구, 지향 등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정신적 삶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다(Dilthey, 1981〔1910〕: 265). 이 두 가지 계기는 한편으로 해석자가 놓여 있는 현재의 시간과, 다른 한편으로 그가 이해하고자 하는 타인이 놓여 있었던 과거의 시간을 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먼저 '현재화'는 행위자들이 놓여 있었던 삶의 상황과 구조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과제다. 그런데 왜 딜타이는 여기서 단지 '배경지식'에 준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성의 차원을 도입하는 '현재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딜타이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사실 자체의 실증적 규명이 아니라, 행위자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어떤 사회적 조건을 '현재의 시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딜타이가 현재화와 더불어 추체험의 또 하나의 계기로 언급하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딜타이는 이 개념을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위한 계기로서가 아니라, 해석자 자신의 내면성의 특정 측면을 의식적으로 부각 또는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삶에 대한 추체험에 도입하는 계기로서 언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딜타이 해석학에서 상상력의 역할은 해석자 자신의 역사적 시간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타인에 대한 해석 과정에 도입하는 데 있다. 이것은 가다머의 개념을 빌자면, 해석자의 이해의 지평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해석 과정에 반성적으로 도입(abhebende Aneignung der Vormeinung)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adamer 1990〔1960〕: 273-274). 이처럼 이입·현재화·상상력을 통해 이뤄지는 추체험적 인식은 제4장에서 서술한 삶의 역사성과 역사적 의미구성을 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www.kci.go.kr

Ⅵ. 전망과 한계

이 논문은 딜타이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그의 해석학 방법론을 감정이입으로 축소해서 이해해왔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다. 만약 딜타이에 대한 기존의 표피적인 이해가 단지 딜타이라는 한 명의 철학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면 이 연구의 의의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고전 이론에 대한 오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학에서 해석적 접근의 이론과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로막은 커다란 장애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딜타이가 대표하는 근대 해석학을 낭만적 감정이입의 이론으로 축소함으로써, 현대 사회학은 근대 해석학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발전시킨 풍부한 정신학적 체계와 인식론적 구상들을 사회학적 행위이론과 연구방법론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작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딜타이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연구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에 기여하는 몇 가지 함의를 이끌어냈다. 첫째, 행위자의 삶을 구성하는 경험은 곧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이며, 따라서 삶의 과정이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타인들과 특정한 형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경험의 연속이다. 행위자들은 이러한 경험들 간에 모종의 연관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적 경험을 의미 있는 체험으로 만들며, 그로부터 개별적 체험들 간의 연관관계로 구성되는 의미의 세계가 생성된다. 둘째, 삶은 또한 근원적으로 시간성 속에서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행위자의 의미세계는 삶의 전개 속에서 일어났던 각각의 체험들이 과연 어떤 인과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그러한 해석적 실천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제도 속에서 객관화된 사회적 의미구조를 매개로 하며, 또한 역으로 사회적 의미구조를 변형시킨다. 셋째, 행위자들의 의미세계에 대한 학문적 해석은 삶의 외부에서 만들어진 형식적 범주들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자들 자신이 삶의 체험으로부터 생성시킨 실재적 범주들에 뿌리내리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존재론적·인식론적 관점을 따른다면 행위자들의 의미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은 그들의 삶의 상태 또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감정이입을 의미할 수 없다. 의미의 해석은 행위자들의 삶의 역사적 전개와 그로부터 생성된 의미연관의

www.kci.go.kr

체계를 역진적으로 재구성하는 추체험의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딜타이의 통찰은 사회학적 행위이론과 의미이론, 그리고 해석방법론을 더욱 체계적이고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타이의 해석학은 하나의 중요한 지점에서 가다머 등의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해석자 자신의 역사성, 즉 해석자 자신의 해석 행위가 터하고 있는 이해의 선구조를 어떻게 해석학적 인식론과 방법론에 반성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딜타이는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학문적 해석이 비록 일상적 이해와 동일시될 수는 없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인간 행위자들의 보편적 존재양식인 대화적 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수행적 활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주목하고 성찰하지 않았다. 일상적 이해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해석 역시 해석자 자신과 그의 해석 행위가 놓여 있는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뤄진다. 그러한 맥락으로부터 독립된 해석이란,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인식론적 토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존재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성찰하는 과제는 아마도 딜타이 내부에서 충분히 성취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적대자인 가다머가 단지 단편적으로만 내비친 방법론적 구상들, 즉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선의견의 정당성을, 즉 그것의 기원과 타당성을 명시적으로 시험"하고, "자신의 선의견과 선판단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어 전유"하며, 그리하여 "역사적 지평들의 융합을 통제된 방식으로 수행"(Gadamer, 1990〔1960〕: 272, 274, 310)하기 위한 방법론적 규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인석. 2007. "하이데거와 딜타이." 『칸트연구』 19. 183-211.

김재철. 2001a. "하이데거의 삶의 현상학 - 초기 하이데거에서 딜타이의 의미." 『철학과 현상학 연구』 16. 241-274.

www.kci.go.kr

김재철. 2001b. “하이데거의 딜타이 연구.”『해석학 연구』 8. 184-224.
김창래. 2008. “딜타이는 누구인가? 가다머의 딜타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철학탐구』24. 245-284.
양해림. 1999. “딜타이에 있어서 개인, 사회, 그리고 상호작용의 변증법.”『철학연구』44. 283-306.
양해림. 2000. “후설의 생활세계와 딜타이의 삶의 경험.”『철학연구』50. 135-159.
양해림. 2001. “인문학의 패러다임과 인문학 위기의 극복책을 위하여 - 딜타이와 신칸트학파, 베버, 하버마스를 중심으로.”『해석학 연구』8. 34-67.
양해림. 2003. “이해와 설명의 방법 - 딜타이와 베버의 수단/목적의 행위 이론 고찰.”『해석학 연구』 12. 156-198.
이서규. 2008. “딜타이의 해석학과 정신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동서철학연구』49. 367-390.
장원석. 1991. “해석학 논쟁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제문제.”『한국정치학회보』25(1). 435-465.
최성환. 2001. “칸트와 해석학 - 딜타이의 ‘역사이성비판’의 성립 배경을 중심으로.”『칸트연구』 7. 177-205.

Bulhof, Ilse Nina. 1976. “Structure and Change in Wilhelm Dilthey’s Philosophy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15(1). 21-32.
Bulhof, Ilse Nina. 1980. *Wilhelm Dilthey. A Hermeneutic Approach to the Study of History and Culture*. The Hague, Boston, and London: Martinus Nijhof.
Dewey, John. 1988[1929]. *The Quest for Certainty. The Later Work, 1925-1953, Vol.4*.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ewey, John. 1991[1938]. *Logic: The Theory of Inquiry. The Later Work, 1925-1953, Vol.12*.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ilthey, Wilhelm. 1990[1864-68]. “Frühe Vorlesungen zur Logik und zum System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n W.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20*. Stuttgart: Vandenhoeck & Ruprecht. 1-126. 아래에서 *Gesammelte Schriften*은 *GS*로 줄임. 출판도시와 출판사는 모두 동일함.
Dilthey, Wilhelm. 1990[1883]. *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en*. *GS 1*.
Dilthey, Wilhelm. 1990[1885/86]. “Logik und Erkenntnistheorie.” in *GS 20*. 165-234.
Dilthey, Wilhelm. 1982[1892/93]. “Leben und Erkennen.” in *GS 19*. 359-388.
Dilthey, Wilhelm. 1957[1900]. “Die Entstehung der Hermeneutik.” in *GS 5*. 317-338.
Dilthey, Wilhelm. 1984[1907]. *Das Wesen der Philosophie*. Stuttgart: Reclam.

www.kci.go.kr

Dilthey, Wilhelm. 1981[1910].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Frankfurt/M.: Suhrkamp.

Dilthey, Wilhelm. 2004[1904-11]. *Logik und Wert. GS 24*.

Fischer-Rosenthal, Wolfram. 1995. "Zum Konzept der subjektiven Aneignung von Gesellschaft." in Uwe Flick et al. (eds.). *Handbuch qualitativer Sozialforschung*. Weihnheim: Beltz. 78-89.

Gadamer, Hans-Georg. 1995[1949]. "Die Grenzen der historischen Vernunft." in H.-G. Gadamer. *Gesammelte Werke 10*. Tübingen: Mohr Siebeck. 175-178. 아래에서 *Gesammelte Werke*는 *GW*로 줄임. 출판도시와 출판사는 모두 동일함.

Gadamer, Hans-Georg. 1993[1959]. "Vom Zirkel des Verstehens." in *GW 2*. 57-65.

Gadamer, Hans-Georg. 1990[1960]. *Wahrheit und Methode*. in *GW 1*.

Gadamer, Hans-Georg. 1993[1966]. "Die Universalität des hermeneutischen Problems." in *GW 2*. 219-231.

Gadamer, Hans-Georg. 1987[1983]. "Der Unvollendete und das Unvollendbare. Zum 150. Geburtstag von Wilhelm Dilthey." in *GW 4*. 429-435.

Gadamer, Hans-Georg. 1987[1984]. "Das Problem Diltheys. Zwischen Romantik und Positivismus." in *GW 4*. 406-424.

Gadamer, Hans-Georg. 1995[1991]. "Die Hermeneutik und die Dilthey-Schule." in *GW 10*. 185-205.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Geertz, Clifford. 1983. *Local Knowledge*. New York: Basic Books.

Gerhardt, Uta. 2001. *Idealtypus*. Frankfurt/M.: Suhrkamp.

Giddens, Anthony. 1976. *New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Basic Books.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UK: Polity.

Habermas, Jürgen. 1968.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M.: Suhrkamp.

Habermas, Jürgen. 1970. *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Frankfurt/M.: Suhrkamp.

Habermas, Jürgen. 1983.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Frankfurt/M: Suhrkamp.

Hahn, Achim. 1994. *Erfahrung und Begriff*. Frankfurt/M.: Suhrkamp.

Jung, Matthias. 1995. "From Dilthey to Mead and Heidegger: Systematic and Historical Relation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3(4). 661-677.

Jung, Matthias. 1996. *Dilthey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www.kci.go.kr

Jung, Matthias. 2008. "Wilhelm Diltheys handlungstheoretische Begründung der hermeneutischen Wende." in Gudrun Kühne-Bertram and Frithjof Rodi (eds.). *Dilthey und die hermeutische Wende in der Philosoph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57-272.

Kaesler, Dirk. 2003. *Max Weber*. Frankfurt/M. and New York: Campus.

Lau, Viktor. 1999. *Erklären und Verstehen: Historische Perpektiven der Hermeneutik*.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Makkreel, Rudolf A. 1991. *Dilthey. Philosoph der Geisteswissenschaften*. Frankfurt/M.: Suhrkamp.

de Mul, Jos. 1991. "Dilthey's Narrative Model of Human Development: Necessary Reconsiderations after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of Heidegger and Gadamer." *Man and World* 24. 409-426.

Müller, Hans-Peter. 2007. *Max Weber*. Köln: Böhlau Verlag.

Peirce, Charles. 1998. *Change, Love, and Logic. Philosophical Essay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University.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1977. *Hermeneutik und Kritik* (1838). Frankfurt/M.: Suhrkamp.

Scholtz, Gunter. 1995. *Ethik und Hermeneutik*. Frankfurt/M.: Suhrkamp.

Simmel, Georg. 1989[1892]. *Die Probleme der Geschichtsphilosophie*. in G. Simmel. *Georg Simmel Gesamtausgabe 2*. Frankfurt/M.: Suhrkamp. 297-421. 아래에서 *Georg Simmel Gesamtausgabe*는 *GSG*로 줄임. 출판도시와 출판사는 모두 동일함.

Simmel, Georg. 1999[1908]. *Soziologie*. in *GSG 11*.

Simmel, Georg. 1996[1910]. *Hauptprobleme der Philosophie*. in *GSG 14*. 7-157.

Simmel, Georg. 1999[1917]. *Grundfragen der Soziologie*. in *GSG 16*. 59-150.

www.kci.go.kr

- Abstract -

Historicity of Life and the *Nacherleben*

- The Theory of Meaning and the Methodology of Hermeneutical Reconstruction in Wilhelm Dilthey's *Geisteswissenschaften* -

Shin, Jinwook*

Wilhelm Dilthey, who made a critical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hermeneutics, tried to develop epistemological, logical, and methodological ideas for interpreting the meaning on the ground of the ontological understanding of meaningfully mediated symbolic interactions. Although his *Geisteswissenschaften* made a deep influence upon the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ology of some classical sociologists like Weber and Simmel, the contemporary sociology did not go beyond a superficial and one-sided understanding that Dilthey's hermeneutical methodology depends upon romanticist conceptions of empathy, sympathy, or psychological identification with others. The present article, however, draws some significant insights that may contribute to the sociological theory and interpretive methodology by reintrepreting Dilthey's *Geisteswissenschaften* and hermeneutics. Firstly, the life of human actors is nothing but a continuous process of experiencing the social interaction and interrelatedness with others, and the 'meaning' emerges through the interpretive practices of weaving a system of connection from the individual experiences. Secondly, the life and the meaning is historical in its nature, because the world of meaning is constructed by interlinking individual past experiences to constitute a unitary

* Chung-Ang University / Sociology

www.kci.go.kr

narrative of the whole life-history. Thirdly, for the hermeneutical explication of the process of meaning-making and the system of meanings, one cannot depend upon empathy and sympathy, but should make an inversive operation of *Nacherleben* the methodological core of which resides in reconstructing the action environment of actors, the proceedings of their life-history, and the system of meanings that emerge out of the very lived experiences of *life itself*.

Key Words : Dilthey, Hermeneutics, Lived Experience, Meaning, Nacherleben, Methodology

[2009.1.23 접수] [2009.2.28 게재확정]

저자 **신진욱**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관심분야는 사회이론, 사회과학방법론, 정치사회학, 사회운동 연구 등이다. 최근 주요논문으로는 "해석학의 존재론적 전환과 '정당한 이해'의 이상" 『한국사회학』 제43집 1호(2009), "시장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경제와사회』 제81호(2009) 등이 있다.
■ E-mail : socioshin@cau.ac.kr

www.kci.go.kr

www.kci.go.kr